

□□□□□ □□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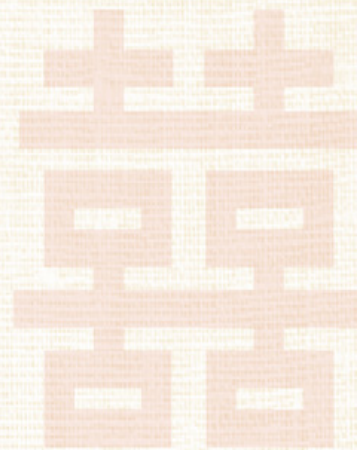
[□□□□ □□ □□]



2020 연수문화원

전통 혼례식

TRADITIONAL WEDDING CEREMONY



연수문화원에서는 우리의 전통 혼례가 갖고 있는 고유의 가치를 널리 보급하고
전통 생활 문화를 계승 발전시키고자 전통 혼례식을 진행합니다.
이에 실제 혼례의 주인공으로 참가하실 3쌍을 모시고자 하오니 많은 관심 바랍니다.



- 일 시** 2020년 10월 31일 (토) 11:00
- 장 소** 원인재(인천시문화재자료 제5호)
- 대 상** 연수구민 3쌍 (결혼예정인 커플, 결혼식을 못 올린 부부, 특별한 사연이 있는 부부)
- 선 정** 신청자 중 3쌍 선정
- 신청기간** 2020년 9월16일 (수) 까지
- 참 가 비** 무료(혼례자 특전 - 혼례식 지원, 기념 앨범 및 액자 증정)
- 문 의** 연수문화원 전통문화팀 TEL. 032-821-6229



주최  연수문화원
Yeonsu Cultural Center

후원  **Yeonsu** Better life 인천광역시 연수구



□□□□	2020. 10. 31. (□) 11:00~
□□□□	2020. 9. 16.(□) □□ □□ □□
□□□□	□□□(□□ □□□□□ □5□)
□□/□□	□□ : □□□□□ / □□ : □□□
□□	□□□□□ 032-821-6229
□ □	<p>□□□□□□□□ □□□ □□□□□ □□ □□ □□□ □□□ □□ □□□□, □□□□ □□□ □□ □□□□□□ □□ 10□ 3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p>

- 7월의 시티투어 -

원인재와 이허겸묘

승기천

선학동느티나무

권반묘

부평이씨 묘역

적십자요양원



2020 Yeosu City Tour
연수시티투어

- 문학동남부와 승기천을 찾아서 -



시간	2020년 7월 25일 토요일 09:00 ~ 13:00
대상	연수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 관심이 있는 누구나
인원	35명 선착순 모집
신청	연수문화원 사무국 방문 및 전화접수
문의	연수문화원 문화사업팀 032.821.6229
비용	무료 (연수문화원 평생회원가입 필수)



□□□□	2020. 7. 25. (□) 9:00~13:00
□□□□	2020. 7. 1. (□) ~ □□□ □□ (□□ □ □□□□)
□□□□	□□□□□, □□□ □□□□ □□□ □□
□□/□□	□□ : □□□□□□ / □□ : □□□
□□	□□□□□□ 032-821-6229
□ □	<p>□□□□□□ □□□ □□□□ □□□□□□□□ □□ □□□ □□□ □□□□□ □ □□□ □□□ □ □□□□□□ <□□□□□□□□>□ □□□□. □□□□□□ □□□□ □□□□□ □□□□ □□ □□□□□ □□□□□□ □□□ □□□□□ □□□ □□□□ □□□ □□□□□□□□. 7□ □□□ □□□ □□□□ □□□ □□□ □□□□□ □□□□ □□□□□□□□ □□□□□. 7□ 1□□□ 35□ □ □□ □□ □ □□ □□□□ □□□□ □□□□□. (□□□□□□ □□□□ □□ □□)</p>

2020 인천시민대학 수강생 모집

모집기간

2020.4.6.(월)오전10시 ~ 선착순

참가비

무료(단, 탐방비 및 여행자 보험비 개인부담)

문의

연수문화원 교육사업팀 032)821-6229

인천 지역 특화성을 지닌 교육과정과 민주시민교육을 통하여
인천시민의식 강화 및 민주시민교육의 대중적 확산을 위하여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우금 마을이야기 교육 및 지역사회 아카이빙

기간 2020.7.2. ~ 8.24.
매주 월요일 13시 30분 ~ 16시 30분
목요일 10시 ~ 13시
장소 연수문화원, 연수구 일대
강사 최정학



회차	일시	강의내용	회차	일시	강의내용
1	7.2.(월)	먼우금 마을기행과 마을이야기를 시작하며 (강의)	9	7.30.(목)	한진마을과 송도어촌계를 찾아서 (현장탐방)
2	7.6.(목)	연화부수지와 까치섬 일대를 찾아서 (현장탐방)	10	8.3.(월)	연경산 일대와 청학동 느티나무를 찾아서 (현장탐방)
3	7.9.(목)	지역인문학의 의미와 활용 방향 (강의)	11	8.6.(목)	서달산 일대와 옥골 및 용암마을을 찾아서 (현장탐방)
4	7.13.(월)	정량산 남쪽 기슭 능어리 일대를 찾아서 (현장탐방)	12	8.10.(월)	합박매와 적십자결핵요양원을 찾아서 (현장탐방)
5	7.16.(목)	마을조사와 아카이빙, 구술 방법론 (강의 실습)	13	8.13.(목)	마을조사 정리와 글쓰기 및 첨삭지도 (강의 실습)
6	7.20.(월)	동막어촌계와 동막 마을을 찾아서 (현장탐방)	14	8.17.(월)	선학동 농안말, 새터말, 도장리를 찾아서 (현장탐방)
7	7.23.(목)	마을조사와 글쓰기 내용 발표와 첨삭지도 (강의 실습)	15	8.20.(목)	먼우금 마을이야기 원고 취합과 피드백 (강의 실습)
8	7.27.(월)	봉재산과 적전어촌계를 찾아서 (현장탐방)	16	8.24.(월)	먼우금 마을이야기 공개워크숍

회차	일시	강의내용	회차	일시	강의내용
1	7.7.(화)	민주주의와 시민, 교육으로 잇다	6	7.28.(화)	soft vs. critical 세계시민
2	7.13.(월) *온라인강의	영화로 보는 우리 사회의 인권	7	8.4.(화)	민주야, 탐방가자 (1) -대한민국역사박물관
3	7.14.(화)	영화를 통해 인권을 토의하다	8	8.11.(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민주주의
4	7.20.(월) *온라인강의	동화책과 만화로 보는 우리들의 세상	9	8.18.(화)	민주야, 탐방가자 (2) -전태일 기념관
5	7.21.(화)	시(詩)와 책으로 만난 우리들의 세상	10	8.25.(화)	신문으로 완성된 우리들의 민주시민교육

공감, 동행, 체험하여 키워가는 공동체 민주시민교육

기간 2020. 7.7. ~ 8.25. 매주 화요일
(7.13./7.20.월요일 온라인 강의)
10시 30분 ~ 12시 30분
장소 연수문화원, 대한민국역사박물관,
전태일 기념관
강사 윤노아



섬 문화유산을 찾아서 떠나는 섬 스토리텔러 및 유튜버 양성

기간 2020. 7. 1. ~ 9.9. 매주 수요일 14시 ~ 16시
장소 연수문화원, 덕적도, 교동도
강사 이세기



회차	일시	강의내용	회차	일시	강의내용
1	7.1.(수)	공생으로 읽는 인천의 섬문화	7	8.12.(수)	굴업도의 지명과 민어 파시
2	7.8.(수)	덕적군도의 재발견과 입도조	8	8.19.(수)	잡어의 수장과 만도리어장
3	7.15.(수)	생명을 살리는 섬 언어와 지명, 풍경	9	8.26.(수)	삼도수군통영어과 교동읍성을 찾아서 (버스 탐방)
4	7.22.(수)	안강망의 황금시대와 복리	10	9.2.(수)	스토리텔링 발표 준비 및 피드백
5	7.29.(수)	덕적군도를 찾아서 (선박 탐방)	11	9.9.(수)	워크숍 : 모듬별 결과물 발표
6	8.5.(수)	섬으로 찾아온 사람들			

주최 인천평생교육진흥원 인천 Institute For Lifelong Education 주관 연수문화원 Yeosu Cultural Center 후원 인천광역시 Incheon Metropolitan City

□□□□	2020. 7.~ 9.
□□□□	□□□ □□ □□
□□□□	□□□□□
□□/□□	□□ : □□□□□□□□□□ / □□ : □□□□□□ / □□ : □□□□□□
□□	□□□□□□ 032-821-6229
□ □	<p>□□□□□□ □□□ □□□□□ □□□□□ □□□□□ □□□ □□□ <□□□□□□□□>□ □□□□□.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 □□□□□□ □□□□□.</p> <p>* □□□ □□ □□□□□ □ □□□□ □□□□□</p> <p>- □□: 2020.7.2.(□) ~ 8.24.(□), □□ □□□ / □□□, □ 16□</p> <p>* □□□ □□□□□□□</p> <p>- □□: 2020.7.7.(□) ~ 8.25.(□) □□ □□□, □ 10 □(7.13./7.20(□) □□□□□)</p> <p>* □ □□□□□ □ □□□ □□</p> <p>- □□: 2020.7.1.(□) ~ 9.9.(□) □□ □□□, □ 11□</p>

연수문화원에서는 2019년에 이어 점차 잊혀져가는
 연수구의 자연, 인문, 환경, 인물, 유적지, 유물, 역사민담, 설화 등의
 이야기들을 보존하고 다음세대에게 전승하고자
 연수 향토이야기 오페레타 전문가 양성심화과정을 진행합니다.

2020년 온(On)동네 특화 프로그램 지원사업 선정

연수 향토이야기 오페레타 전문가 양성심화과정 참가자 모집

세부 교육프로그램

교육일	내용	교육일	내용
8.10.(월)	향토이야기 콘서트의 필요성 및 연극의 개념	10.5.(월)	브로킹 등 동작
8.17.(월)	연기의 기본자세 및 작품 분석 기초	10.12.(월)	연기의 기본자세 및 작품 분석 심화
8.24.(월)	캐릭터 분석 및 배정	10.19.(월)	성격 분석 및 감정표현
8.31.(월)	극본 속 인물의 행위	10.26.(월)	신체의 움직임 훈련
9.7.(월)	공연화술 기초1	11.2.(월)	공연을 위한 대사훈련 심화
9.14.(월)	공연화술 기초2	11.9.(월)	무대소품 만들기
9.21.(월)	대사 읽기 및 연기1	11.16.(월)	공연 리허설
9.28.(월)	대사 읽기 및 연기2	11.23.(월)	리허설 평가·공연 보완 및 수료식



교육장소 연수문화원 미디어강좌실

교육기간 2020.8.10. - 11.23. 매주 월요일 10:00-13:00(교육 16회, 공연 1회)

교육대상 관심있는 누구나

접수기간 7월 13일(월) 9시부터 선착순 20명

수강료 무료 (교재비 20,000원 별도)

특전 연수문화원장 명의의 수료증 수여(80%이상 출석)

문의 032) 821. 6229 (연수문화원 문화사업팀)



□□□□	2020. 8. 10.(□) ~ 11. 23. (□) 10:00~17:00 □ 16□
□□□□	2020. 7. 1. (□) ~ □□□ □□ (□□ □ □□□□)
□□□□	□□□□□
□□/□□	□□ : □□□□□ / □□ : □□□□□, □□□
□□	□□□□□ 032-821-6229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8□ 10□□ □□□□□ 11□ 23□ □□ □□ □□□ 10:00~13:00□□ □ 16□□ □□ □□□□□□□□ □□□□ □□ 1□□ □□□□□□ □□□□□. 7□ 13□□□□ 20□ □□□□ □□ □ □□ □□□□□.

□□□□ □□□□□ RoĻand FARKAS



Roland FARKAS was born as a member of the Hungarian community in the closed society of the former socialist Czechoslovakia. He has experienced the transition from a communist society to a capitalist one in his early

teens. After years of musical experimentation in different punk rock bands FARKAS's interest gradually shifted towards visual arts. The artist moved to Budapest, Hungary ten years ago where he recently lives and works. During his art studies the artist became interested in the issues of contemporary life's effects on interpersonal values and human condition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0□ □ □□□□ □□□□□□□□ □□ □□□□ □□ □□□□
□□□□ □□. □□□ □□□□ □□ □□□□□ □□□□ □□ □□ □□□□ □□□ □□□ □□□ □□□ □□□ □□□

□□□ □□ □□□.



New World Exchange, 35.2×18.6cm, over print on banknotes with transparent UV-active ink, 2018

Q&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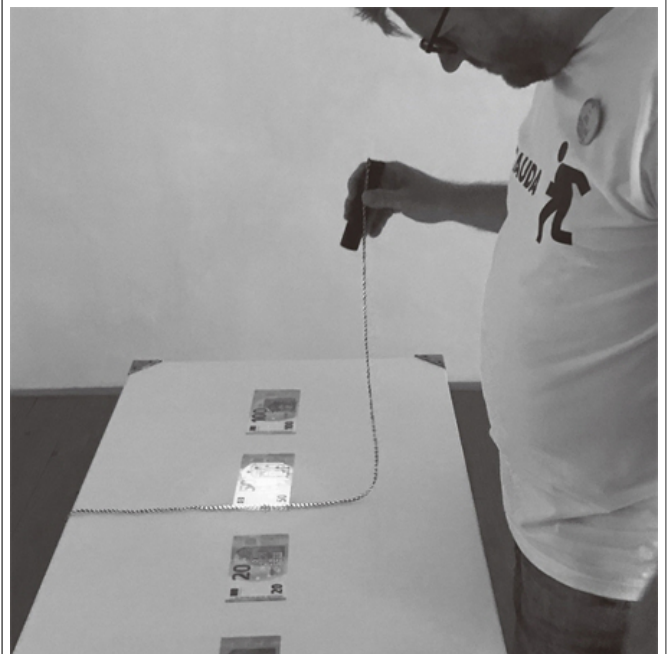
Q. Introduce your work in general and the process of creation/production.

A. My recent works are ironic reflections on today's universal capitalism. After realization of conceptual artworks mostly dealing with the role of art today, ten years ago I started to focus on the topic of 'money' as the symbol of current economic system. Banknotes – as the main material of these artworks – during the artistic process usually turn into an illustrative tool to reveal the system's defects. I am also interested in money's role as the common means of communication used in our daily lives that connects and separates people at the same time. In my previous projects realized with audience involvement I have modeled the devaluation of money in the post-crisis Argentina. I have examined the radical impact of the last few decades' economic boost on South Korean society and analyzed the radical difference between art's commercial and intellectual value in the Netherlands and Hungary. My works are realized in various media.

Q. What is your representative work/exhibition? And why do you think so?

A. In my latest solo exhibition entitled 'Bank of the Future Limited' I focused on the society of "achievement-subjects" as it is defined in the book 'The Burnout Society' by philosopher Byung-Chul Han. I was interested in the symbolic places and characters representing today's society that can't be depicted anymore by the characteristic places of Michel Foucault's disciplinary world of hospitals, madhouses, prisons, barracks and factories. It has been replaced by the society of shopping malls, fitness studios, airports, banks, etc. Because of their overflowing positivity, these symbolic environments are almost perfectly capable to exclude the possibility of any kind of revolt against the new regime of achievement society. Rather the increasingly threatening climate catastrophes are concluding the job worldwide instead of retired revolutionists with Molotov cocktails, having the only potential – however literally – to set our world on fire.

As one of the consequences of climate change is the migration of people that is envisaged in massive proportions in the future. Migrating middle class to economically more prosperous countries is substituted with even cheaper workforce from even poorer countries. Crises – either economic or ecologic – dissolve the order that regulates relationships among people. For this project I used special transparent pigment – active only under ultraviolet light – to transform the design of banknotes and integrate 'invisible' scenes. I was inspired by one of Jorge Luis Borges' allegoric stories. In the novel there are beings who are detained behind the mirror and one day they refuse to fulfil their punishment: the servile imitation of human gestures. In this project I was interested in the simultaneous depiction of the ideals of contemporary society and the broken reflection caused by the self-destructive chase for ultimate positivity.



BANK OF THE FUTURE LIMITED, transparent UV-active ink, stamps, banknotes, 2019

Q. How do you think about communication between art and spectators?

A. Ultimately my artistic practice is based on the opposition of intellectual property vs. the current regime of late capitalism. Let me be clear in saying that I do believe in art's role in shaping of society and its potential to reach its audiences. Firstly, in the most basic level, it is evident that without art the world would be an infinite grey desert of bleakness. Secondly, most people agree that so called 'high art' is consumed only by a narrow elite. It might be so. But

the role of art in today's society is in a constant change. Messages of artist are passed over to audiences not only in the 'white cube' but also in public spaces but eventually it reaches broad masses on the internet, most typically on social media platforms. Artists of today have influence on before unknown audiences with issues targeted to their everyday life. I am convinced that every art is political by its nature.

Q. 問, 藝術 空間 場所 問題

A. 藝術空間 場所 問題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high art)'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場所.



ÉGALITÉ, LIBERTÉ, FRATERNITÉ, 210×245mm (3 pieces), engraved plexiglass with LED lighting,

2016

Q. Your wishes as an artist./ Your long-term plans./ Your goals and concerns, etc.

A. As an artist I wish to create more *'open works'* as Umberto Eco referred to the topic in his book *'The Open Work'*. The book discusses the powerful concept of "openness", the

artist's decision to leave arrangements of some constituents of a work to the public or to chance. I would like to improve my future works in that direction.

In one of my earlier performance art projects I decided to relax in a deck chair in the middle of the busy main square of a city. On a sign next to me the following text was readable: 'An artist has the right to just lay around all day gazing at the sky'. I was trying to draw attention on the rights of individuals (not only artists) for a fulfilling and dignified life in a world that leaves less and less space for contemplation. One of my concerns aims to the cultural policies worldwide. I wish that the decision makers will have better understanding of the artist's role in society – who creates cultural value in most cases free of charge – providing proper conditions for their creative functioning without ideological restrictions and predefined expectations.





NEW WORLD EXCHANGE, performance, Seoul Art Space Geumcheon, Seoul, 2018

Q.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A.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The Open Work)>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의 어떤 것. 어떤 것 '어떤(openness)'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어떤 것.



ARTIST HAS THE RIGHT TO

JUST LAY ALL DAY AND WATCH THE SKY, performance, Czech, 2002

□□□□ : www.rolandfarkas.blogspot.com

□□□ □□□ **Tomoko KIKUCHI**



Based in Beijing, Tomoko KIKUCHI's photography, video, and video installation works examining the themes such as gender, social changes and war, focus on the people who live in cracks of a dynamically transforming society. For example *I and I* (2005-2013), *Lost Boundaries* (2012) are the photographic and video works about young Chinese LGBT people who wander about the unclear boundaries separating men and women, where big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exuality in urban youth. In every project she has been involved with their community fellowship for a long

period of time. these works visualize the energy of crashes out of conflicts, and the human power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and complexity of the world.

北京のアーティストトモコキクチは、写真、映像、および映像インスタレーションを通じて、性別、社会の変化、戦争などのテーマを探求し、動的に変化する社会の亀裂に生きる人々を捉えています。例えば「I and I」(2005-2013)、「Lost Boundaries」(2012)は、若い中国のLGBTの人々について、男性と女性を分離する不明確な境界線を探る作品です。彼女が参加しているすべてのプロジェクトで、そのコミュニティの仲間と長期間にわたって関わっています。これらの作品は、衝突のエネルギーを可視化し、矛盾と世界の複雑さを乗り越える人間の力を見せます。



Exhibition view of *Go-Betweens: The World Seen Through Children*, 2014

Lost Boundaries ([][][] [][]) & *Wounded* ([] []), Video installation, color, 2014

Q&A

Q. Introduce your work in general and the process of creation/production.

A. Based in Beijing, my works examine themes such as gender, social change and war and focuses on the people who live in cracks of a dynamically transforming society. For example *I and I* (2005- present) and *Lost Boundaries* (2012) are photographic and video works about young Chinese LGBT individuals who wander about the unclear boundaries that separate men and women, and takes place where big changes are occurring in the sexuality in urban youth. *The River* (2013) is a photographic work about the life and death of contemporary society through the changes within the lives of fisherman living in the world's biggest and longest rivers. Through these works I try to visualize the energy of the crashes that form from conflicts, and the human power to overcome the contradiction and complexity of the world.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2

Q. What is your representative work/exhibition? And why do you think so?

A. *I and I* is a photographic series that witnesses rapid changes in China's society and social awareness through the lives of transgender people. This project visualizes their energy and power to overcome the pressure not only from society and family but also from themselves. From 2005 to 2013, when I was involved in this project, it was the turning point in the awareness of Chinese people in regards to gender. *I and I* portrays Chinese transgender people, from the dark days when they lived an underground existence, to when they began to discern a gleam of light, to depicting the conflicts and spirits that exist between their ideals and reality.

I think this project changed my previous working style and builds up to the current working style in which I am involved in the subjects and observe the world surrounding them over a long period of time. I think from this project I learnt to manage to see the relationships between the subjects and world from wider perspectives and angles.

Q. 如何 看待 你 的 作品 (你 的 作品) 和 你的 生活 的 关系?

A. 我的摄影作品总是让我感到一种莫名的吸引力。这种吸引力往往来自于那些我偶然遇到的陌生人。在开始的时候，我通常没有强烈的意图去与他们合作，但随着时间的推移，他们的吸引力越强，我就越愿意与他们合作。从2005年到2013年，我拍摄了大量的照片，这些照片记录了我与这些陌生人的相遇。这些照片不仅记录了我的生活，也记录了他们的生活。通过我的镜头，我们可以看到一个真实的世界，一个充满故事和感动的世界。

在拍摄的过程中，我经常会遇到一些意想不到的事情。这些事情有时会让我感到惊讶，有时也会让我感到感动。正是这些瞬间，让我的作品充满了生命力。我希望通过我的作品，能够让更多的人看到这个世界的美好，也能够让更多的人理解这个世界。



I and I photography series, 2005-2013

Q. What is the inspiration, motivation, moment of your work?

A. My inspirations mostly come from people who I meet by coincidence or places where I was very strongly attracted without reason. In the beginning I usually have no intention to produce work with them but eventually the stronger and the more powerful their attraction are the more I involve in. It becomes a piece of work when my inner self resonates with the subject.

For some reason, the people and places that are strongly attracted to me, I realize later on, have a strong relationship with my own inner issues and also the issues with myself and this world.

Q. 我的作品，总是，让我感到一种莫名的吸引力

A. 這 個 時 候 我 們 需 要 一 些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4

Q. How do you think about communication between art and spectators?

A. I don't think the work is completed when the artist has finished producing it, but after the audience sees it, receives emotions and thinking from it. And then I think it's completed.

So I assume that communication between artists and their audiences is based on the artists' deep thinking which can transcend time and space for wider audiences of different strata, generations, and different places.

Q.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A.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這 些 時 候 我 們 需 要 更 多 的 時 間 來 觀 察 這 些 事 物。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4

Q. Your wishes as an artist./ Your long-term plans./ Your goals and concerns, etc.

A. I will continue the project *Dialogue* which I've been currently working. This is a project that takes place in Japan, South Korea and China. This photography and video installation work aims at evoking conversations of people who are both perpetrators and victims of historical and current issues in these three different countries. Through this project I try to transcend the border, time and space to consider the essence of human nature.

Q. 我想问一下，你的作品《对话》是在哪里展出的？

A. 《对话》这个项目是在日本、韩国和中国三个国家展出的。这个项目旨在通过摄影和视频装置来引发人们对历史和现实问题的思考。通过这个项目，我试图超越国界、时间和空间来思考人性的本质。



Lost Boundaries, 7min, video installation, 2012

📄📄📄 : www.kikuchitomoko.com

📄📄📄📄 📄📄📄 📄📄📄 📄📄 📄📄📄📄 📄📄

📄📄 📄📄 📄📄 📄📄 ver 5. 📄📄

📄📄📄 📄📄 📄📄 📄📄 📄📄 📄📄

📄📄📄📄📄📄📄 2019📄📄 📄📄📄📄 2020📄📄 📄📄 📄📄 📄📄📄
📄 📄📄📄 📄📄 📄📄 📄📄📄 12📄 20📄📄📄 2020📄 5📄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 5📄📄📄 📄
2📄📄 📄📄 📄📄📄 📄📄 📄📄 📄📄📄 📄📄📄.





OO, <OO OO OO>, Railroad ties, 300x75x25cm(7ea), 2015

OOOO OO OO OO OO OO OO

OOOO OO OO, OO, OOO OO OOOO OOOO, OOO OO OO OO OO OO OOOOO OO
OOOO OO OO OO OO OO OO. OOO OOO O OO OOOOO OOOO OOO OOO OOOO OO-
OOOO OOO OO, OOO OO OO OOO OO OO OOO(OO, OO OOO, OOO O O)O OO,
OO, OOO OOO OO O OOOOO OOOO O OOOO. OOO OOO OOOO OO OOOO OOOOO
OOOO OOO, OO OOO OOOOO OO OOOOO OOO OO OOOO OOOO OOOO OO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OO OOOOO OO OO OOOO OOOO OO OO OO OO O
O. OOO OOO OO OO OOOO OOOO 'OOO OO'O OO OO OO OO OO OO OO OO
O OO OO OO OOOO OOO OO OO. OOOO O OO OO OOOO OO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O O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OO. OOO OOO OO OOOOO OOO OO OOOO OOO OO OO OO OO OO OO OO
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 OOOO OOOO OO OO OO.



김현, 리얼리티 오브 오브, Installation view at Incheon Art Platform

이전에는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해왔던 김현은, 이번 작품에서 오브제와 공간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 언어를 구축한다. 4개의 대형 오브제와 벽에 걸린 6점의 그림은 '현'이라는 공간의 구조와 '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작품은 관객의 시각을 유도하고, 오브제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김현, 리얼리티 오브 오브, 2018, 캔버스에 유채, 조각, 오브제, 사진, 비디오, 퍼포먼스. 이 작품은 김현의 대표적 작업 스타일을 보여준다. 그는 회화, 조각, 사진, 비디오, 그리고 퍼포먼스를 통해 표현해왔던 김현은, 이번 작품에서 오브제와 공간을 결합하여 새로운 시각 언어를 구축한다. 4개의 대형 오브제와 벽에 걸린 6점의 그림은 '현'이라는 공간의 구조와 '현'이라는 시간의 흐름을 동시에 보여준다. 이 작품은 관객의 시각을 유도하고, 오브제와 공간의 관계를 탐구하는 데 중점을 둔다.





曹伟, <Ascon>, 462x84x94cm, Ascon, 2004

曹伟, <Coal tar>, 650x150cm, Coal tar, oil bar on paper, 2017

曹伟, <Coal tar>, 53x38.3cm(3件), Coal tar on paper, 2004

曹伟的这三件作品，分别展示了他在不同媒介和主题上的探索。《Ascon》（2004）是一件大型装置作品，由多根细长的黑色枝条状物体组成，呈现出一种类似树根或菌丝体的形态，悬挂在浅色的背景上。《Coal tar》（2017）则是一件由煤焦油和油棒在纸上创作的作品，画面呈现出一种垂直的、向下延伸的形态，背景为黄褐色。另一件《Coal tar》（2004）则是三件小型作品，同样采用了煤焦油和油棒在纸上创作，呈现出一种垂直的、向下延伸的形态，背景为黄褐色。这些作品体现了曹伟对自然形态和工业材料的关注，以及他在不同媒介上的实验精神。

曹伟的这三件作品，分别展示了他在不同媒介和主题上的探索。《Ascon》（2004）是一件大型装置作品，由多根细长的黑色枝条状物体组成，呈现出一种类似树根或菌丝体的形态，悬挂在浅色的背景上。《Coal tar》（2017）则是一件由煤焦油和油棒在纸上创作的作品，画面呈现出一种垂直的、向下延伸的形态，背景为黄褐色。另一件《Coal tar》（2004）则是三件小型作品，同样采用了煤焦油和油棒在纸上创作，呈现出一种垂直的、向下延伸的形态，背景为黄褐色。这些作品体现了曹伟对自然形态和工业材料的关注，以及他在不同媒介上的实验精神。

○○ ○○ ○○○ ○○ ○○○ ○○ ○○○

*○○(b.1961-,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1992○ ○○○
○○ ○ ○○○○ ○○○○ ○○, ○○, ○○○, ○○○○ ○○ ○○○ ○○○ ○○○○ ○○○○ ○○○○○○.
2006○ ○○○○○○○○ ‘○○○ ○○○’, 2004○ ○○○ ○○○ ‘○○○ ○○○’, 2009○ ‘○○○○○
○○○○○’, 2017○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2016○○○ ○○○○○○ ○○○○, ○○ ○○ ○○ ○
○○ ○○ ○○○○○○ ○○○○ ○○.

○○○ ○○ ○ ; ○○○○○ ○○○○○ ○○

○○○ ○○○ ○○○ ○○ ver 6. ○○○
○○○ ○○ ○ ; ○○○○ ○○○○ ○○

○○○○○○○○○○○○○ 2019○○ ○○○○○○ 2020○○ ○○○ ○○ ○○○○
○ ○○○○ ○○○ ○○○ ○○○○ 12○ 20○○○ 2020○ 5○ 6○○
○ ○○○○ ○○. ○○ ○○○ ○○ ○○○○○○ ○○○○ ○○○ ○ ○○ ○
○○ ○○ ○○○○○○ ○○○○○○ ○○○ ○○ ○○ ○○○ ○○ ○○○○ ○○

□□□ □□□ □□□ □□. □□□□□□ 3.0□□□□ 3□□□ 5□□□ □□
2□□ □□ □□□□ □□□ □□ □□□□ □□□□.





000, <000 00-000 0000>, 0000
 00, 00, 200x70cm, 2010-2013
 000, <000 00-000 0000>, 0000

2013, 200x70cm, 2013

2013, 200x70cm, 2013

2013, 200x70cm, 2013

2013, 200x70cm, 2013





蔡國強, <無題 20>, 2019, 249x962x30(h)cm, 2019

蔡國強 <無題 20> 是一件大型裝置藝術作品。作品由數以千個大小不一、形狀不規則、質地粗糙的陶土塊組成。這些陶土塊被排列成一個錯位的網格，形成一個具有立體感的表面。作品探討了秩序與混亂、整體與個體之間的關係。蔡國強通過這種材料的選擇和排列方式，展現了他對空間和形式的獨特理解。這件作品是蔡國強近年來創作風格的體現，展現了他對傳統工藝與現代藝術的結合。

蔡國強的作品深受德國哲學家伽達默爾(Gadamer)的影響。伽達默爾認為，理解是一個過程，而不是一個結果。他強調了傳統在理解中的重要性，認為我們必須通過與傳統的對話來理解世界。蔡國強在創作中體現了這種思想，他通過對傳統工藝的運用和對形式的探索，展現了他對藝術理解的獨特視角。這件作品不僅是一個視覺上的挑戰，更是一個哲學上的探討。蔡國強通過“無題 20”這件作品，向觀眾提出了關於理解、傳統和藝術本質的深刻問題。



水水, <水 水>,
 水水水 水, 水水, 水
 水, 120x62cm,
 2002

水水, <水 水>,
 水水水 水, 水水, 水
 水, 120x62cm,
 2002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2019년 10월 10일



□□□ □□ □□□□ □□(□□ 1□, 6□)

□□ □□□ □□ □□□ □□ □ □□ □□□ □□□□□? □□ □□□□ □□□ □□□ 1□□□ □□□ 1□□, □□□□ □□□ □□□ 8□□□ □□□ 8□□□ □ □□□□□.

□□□□ □□ □□.□□□□□□□ □□□ □□ □ □□ □□□□. □□□□ □□□□ □□□□□□ □□□□□ □ □□, □□□ 1□□□ □□ □□□□ □□□ □□ □ □□ □□□□□ □□□□. □□□□□ □□□□□ □ □□□

이후 2005년 10월 20일(수)에 개장했다. 이 건물은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는 1층이 상점, 2층이 아파트(오피스텔)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2005년 10월 20일(수)에 개장했다. 이 건물은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는 1층이 상점, 2층이 아파트(오피스텔)로 사용되었다. 이 건물은 2005년 10월 20일(수)에 개장했다. 이 건물은 1980년대 초에 지어진 건물로, 원래는 1층이 상점, 2층이 아파트(오피스텔)로 사용되었다.





0000 00.00.0000 000 0(00 80)

000 0000 00 00 0000 00 000000. 00 00 000 00000000 000 00 000. 0
00 000 00000 00000000. 00, 0000 00, 000 00, 00, 000, 000 0 000
000 00 0000 00 00 00000000. 00 000 000 00 000 00 00 00 000000
11~14000000.

000 000 00 000000 000 0.00 000 000 11~1400000 0000, 00000 000 00
0 000 000 00 0000. 000 000, 000000 0000 000 000 000 0000000 0000
00 00 00 0000 000(1100), 000 000 00 000 000 0000 00000 00
000 0 00 000 00(1200), 0000 000 000 000000 000 000000 00, 00, 00
0000 00 00 000(1300), 000 00 0 00 0000 0000000 000 00 00000 0 0
00(1400)00.....

0000 0000 0000 00 00 0000 00 000 000 00 000 00000000. 0 00, 0 0
000 000 00.00.0000 000 000 000000 11~140000 000000.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제3회
경기문화재단·인천문화재단·한국역사연구회 공동 심포지엄

역사 속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2020년 5월 23일(토) 10:00~18:00

참여방법 YouTube 채널 '한국역사연구회', '인천문화재단IFAC'에서 실시간 시청 가능

		사회 : 정학수(인천문화재단)
10:00~10:20	개회식 개회사 환영사 축사	여호규(한국역사연구회 회장) 최병국(인천문화재단 대표이사) 강 현(경기문화재단 대표이사)
10:20~10:50	기조강연 : 근대 인천의 디아스포라와 경계인	발표 : 이영호(인하대)
10:50~11:15	제1발표 4~6세기 백제에서의 중국계 이주민의 활동과 그 의미	발표 : 장미애(고려대) 토론 : 백길남(한성백제박물관)
11:15~11:40	제2발표 6세기 한반도 남부 정세와 경계인의 삶 - 이나사, 마도의 행적을 중심으로 -	발표 : 위가아(성균관대) 토론 : 신가영(연세대)
11:40~12:05	제3발표 경계인으로서의 삼별초	발표 : 오기승(중앙대) 토론 : 강재구(가톨릭대)
12:05~12:30	제4발표 고려인 이백우의 몽골(원)에서의 활동과 그의 가문에 대한 고찰	발표 : 김진근(서울시립대) 토론 : 권용철(고려대)
12:30~13:30	점심	
		사회 : 정성희(경기도박물관)
13:30~13:55	제5발표 조선시대 향화 여진인의 활동과 경계인의 삶	발표 : 이규철(한국외대) 토론 : 박정민(전북연구원)
13:55~14:20	제6발표 여말선초 高昌 僕氏·西蜀 明氏의 한반도 이주와 후손들의 동향	발표 : 안선규(한신대) 토론 : 소순규(한국학중앙연구원)
14:20~14:45	제7발표 반일과 친일의 시점에서 본 1930년대 중반 오사카 재일조선인의 일상적 삶	발표 : 김인덕(청암대) 토론 : 성주현(송실대)
14:45~15:00	휴식	
15:00~15:25	제8발표 1937년 연해주 한인의 강제이주 결정과 그 진행	발표 : 홍용호(동국대) 토론 : 윤상원(전북대)
15:25~15:50	제9발표 해방 후 한국 사회의 화교 차별과 경계인으로서의 화교의 삶	발표 : 이상복(국사편찬위원회) 토론 : 백승덕(역사문제연구소)
15:50~16:15	제10발표 기지의 확장과 생활의 경계: 냉전기 인천·경기지역 '미군기지생활권'의 형성과 의미	발표 : 금보윤(고려대) 토론 : 김성은(UCLA)
16:15~16:30	휴식	
16:30~17:40	종합토론	사회 : 박종민(한남대)

* 본 심포지엄은 Covid-19로 인하여 참석자 동의하에 온라인 생중계로 진행합니다.

주최



다시 쓰는 생활의 기술 있고 쓰는 몸속 위한 예술

2020. 05. ~ 11.

대상
삶의 전환을 모색하는
50세 이상 64세 이하
인천시민 누구나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교육진흥원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인천문화재단 Anyedu 이상평교육안전네트워크 연수문화원

0000 0 00 00 00 00, 00 0000 000000 00

o 000000, 0000 000000 00-0000 000 00

o ()000000000 000(0 50~64) 000 0000 "2020 00 0000 000000" 000 0 0000.

o 00 0000 0000000 0 00 00 00 00 0000000, 00 0000 0000000 00 00 0000 000000 00 0 000 0000000, 000000 0000000, 00000000000, 000000, 0 0000000000000000 0000 00 00000.

o 00 00 0000 00000000 "00 00 000 00, 00 00 00 00 00" 0 000 00, 0 0, 00, 00, 0000 60 000 0000 0000 0000, 00 0 100 00 0000.

o 000 000190 00 0000 0000 00 00 00 00 00 000 000 0 000, 000000 00 00000 00 00 0000 00.

o 00 0000 00000000 000000 0000 0000, 0000 00, 0000 00 00 000 000 0000. 00 000 0000 0000 000000 0000 <0000 00> 0 <00000-00000> 0 <0000 0 000> 0000 000 0000.

o 0000 00000000 00 0000 000 00 0 50~64 000000 000 000 0000. 000 000 00 0000(<http://www.ifac.or.kr>) 0 0000000 00000000000000 0(032-760-1094) 00 0 00 0000000 0000 00.

2020 □ ‘□□□□□ □□□’ , □□□ □□□ □□
□□ □□!

시간 | 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19:30
장소 |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공연장

예매 | 예술공간 트라이보울
www.tribowl.kr 전석 5,000원

문의 | 032-832-7996
* 3세 이상 공연 관람 가능합니다.

2020
05-11

TRI
BOWL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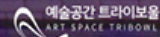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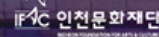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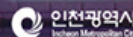
S E R I E S

트라이보울 시리즈



www.tribowl.kr

주최·주관



2020년 '○○○○○ ○○○', ○○○ ○○○ ○○○○ ○○!

- 2019년 10월 10일 공연
- 19일 공연 10월 10일



○ () 2019년 10월 27일, 2020년 10월 10일 공연. 2019년 10월 6일 공연 6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2019년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2019년 10월 10일 공연 3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5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2019년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공연 10월 10일.



○ 우리나라 가장 50 이상 인구 밀집 지역 중 하나인 수도권, 서울과 인천의 90% 이상 인구가 KBS와 SBS를 시청하며, 수도권은 수도권 방송국을 통해 서울과 인천을 연결하는 케이블 방송망이 구축되어 있다. 이러한 방송망은 수도권 방송을 위한 주요 채널로 활용되고 있다.



○ 建築は、空間を定義し、人々を誘い、生活を豊かにする役割を果たす。建築は、環境と調和し、文化を表現し、未来を創る役割を果たす。建築は、人々の生活を豊かにし、文化を表現し、未来を創る役割を果たす。建築は、環境と調和し、文化を表現し、未来を創る役割を果たす。



○ <○○○○○ ○○○> 5 27○○ ○○○ ○○○ ○○○ **6 2 5** ○○○○ ○○○○, ○○○
○, ○○ ○○○○, ○○○ ○○○ ○○ ○○ ○○ ○○○○. ○○○○○ ○○○○ 11○○○○ ○○○ ○○○ ○
○○○. ○○○○○ ○○○ ○○ ○ ○○ ○○○ ○○○ ○○○○○○ ○○○ ○ ○○.

□ ○○○ : ○○○○○○ ○○○○○○ 032)832-7996 / www.tribowl.kr